

정치부기자와 과학담당기자

글 | 박성철 _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연구원 sc0314@nnet.go.kr

정치부기자가 가장 많이 만나는 취재원은 정치인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과학담당기자는 취재를 위해 많은 과학자를 만나고 인터뷰한다. 정치인과 정치부기자, 과학자와 과학담당기자 사이의 관계는 각각 취재원과 언론인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들의 관계는 정치와 과학의 구분만큼이나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취재원에 따라 다른 '거리두기'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는 정치부기자는 종종 정치인으로 변신하곤 하지만, 과학담당기자의 경력을 쌓아 과학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17대 국회의원 가운데 언론계 출신이 40여 명이나 된다고 한다. 한때 정치부기자, 특히 청와대 출입기자는 정계진출의 유리한 통로로 여겨지기도 했다. 지금도 선거 때만 되면, 몇몇 언론인들의 이름이 거론되곤 한다.

그러나, 과학담당기자를 하다가 과학자가 되었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다. 물론, 거꾸로 과학자에서 기자로 변신한 경우는 있지만 말이다. 과학자라는 직업이 장기간의 교육과 훈련을 거쳐야 하는 전문직이라는 점에서 '언론인의 정치인 되기'와 비교하는 것이 무리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이 기자와 취재원의 거리를 드러내는 기본적인 단서일 수 있다.

정치인과 과학자가 기자를 대하는 태도도 사뭇 다르다. 정치인들은 기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쓴다. 때로는 기자들에게 밥도 사고 술도 산다. 간혹 언론 내지 기자와

갈등관계에 놓이기도 하지만, 특정 사안·특정 매체로 한정된 범위에서다. 모든 언론매체와 모든 기자에게 언제나 적대적인 정치인은 없다.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기자들로부터 '잊혀지는 것'이라고도 한다. 곧, 언론과 기자를 무시하고 버릴 수 있는 정치인은 없다.

반면,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기자를 경원시하고 가급적 멀리하려고 한다. 간혹 황우석 박사처럼 정치인 이상으로 기자들을 챙기는 과학자가 있기는 하지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 상당수의 과학자들은 기자를 부정확한 기사를 남발하는 무식쟁이이며 여론을 호도하는 사기꾼 정도로 폄하한다. 심지어 기자나 언론과 빈번한 관계를 갖는 동료 연구자마저 '딴짓'만 하는 엉터리 과학자로 치부하곤 한다.

더 큰 차이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뉴스에 있다. 소수 거물 정치인들의 발언과 행동은 그 자체로서 높은 뉴스가치를 갖는다. 그들의 생각과 의지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급력과 영향력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부기자들은 거물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취재한다. 대선 때가 되면, 아예 언론사들은 각 후보에게 이른바 '마크맨'이라 불리는 전담기자를 배치한다. 이들에게는 새벽부터 밤중까지 특정 정치인과 일정을 함께 하며 밀착 취재하는 역할이 주어진다.

반면에, 과학자의 연구결과는 그 자체로는 뉴스가치를 갖지 못한다. 동료 연구자들에 의한 검증과 평가과정을 거쳐야 한다. 과학자 자신이 아무리 세계적인 연구결과라고 주장해도 동료연구자들에 의해 검증되고 인정받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과학자 본인의 말만 믿고 기사를 썼다가는 과장

보도·허위보도의 오명을 뒤집어쓰기 십상이다.

2005년 9월 전자통신연구소 김현탁 박사팀의 '금속-절연체 전이현상'에 대한 보도나, 지난 3월 서울대 이병천 교수팀의 '늑대 복제' 보도는 단적인 사례다. 연구자의 말과 보도자료에 의존해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나, 얼마 후 일부 과장된 것으로 드러나 홍역을 치렀다. 곧, 과학보도 특히 연구 결과에 대한 보도에서 과학자는 해당 연구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취재원인 셈이다.

'과학' 기자 이전에 과학 '기자'

다시 말해, 정치인과 달리 과학자는 따라다니고 캐묻는다고 해서 특종을 얻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거물 정치인은 지속적으로 뉴스가치가 높은 새로운 뉴스를 생산해 낸다. 그러나 과학자는 한번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냈다고 해서 계속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다. 오히려 언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에 휘말리거나, 심지어 그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인질'로 잡히기 쉽다.

이런 차이들 때문에, 정치부기자와 과학담당기자의 취재와 뉴스가치 판단, 기사작성은 달라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과학담당기자에게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취재원인 과학자와의 '거리두기'다. 마치 정치인을 취재하듯 과학자와 지나치게 밀착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뉴스가치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자칫 연구 성과의 홍보담당자로 전락하게 된다.

황우석 사태는 과학자 개인을 따라다니며 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취재방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였다. 취재원에 대한 접근성 확보는 취재의 기본이다. 따라서 황우석 박사 연구팀과 더 빈번하고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했던 기자들에게서 더 나은 성과가 나왔어야 한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외부인사와 만나는 사진 한 장, 술자리에서 들은 말 한 마디가 좋은 취재감이 되는 정치뉴스와 대비된다. 이런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기자가 과학자를 정치인 만나듯 하는 데서 문제가 잉태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뉴스의 취재와 마찬가지로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사소한 것 하나도 의심하고 비판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자세다. 이것은 저널리스트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

는 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과학자의 연구결과만은 그대로 수긍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져 있는 것 같다. 저널에 게재된 것은 몇 달 전인데 왜 이제야 기자회견을 하는 것인지, 몇 년 전 다른 연구팀의 연구결과와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인지, 왜 해외 연구자들의 코멘트가 것처럼 긍정적(부정적)인지 등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의문을 품고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떤 정치부기자도 정치인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배경과 의도를 추론하고,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다. 이러한 접근방법이 과학자를 만나고, 과학뉴스를 다루는 데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과학담당기자들은 은연중에 과학은 예외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과학' 기자 이전에 과학 '기자' 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황우석 사태가, 복제 늑대 보도가 주는 교훈인 것이다.

언론사 '과학부' 부활 기대

이 글에서 필자는 의도적으로 '과학부기자' 대신 '과학담당기자'라는 표현을 썼다. 실제 그러하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언론사들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학부'는 슬며시 사라졌다. 이제 과학 관련 토픽은 편집국 내에서 거의 논의되지도 않고, 그 노하우와 경험이 전수되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모든 것이 담당기자 개인의 몫이 되고 말았다.

이제 정치보다도 과학이 현대인의 삶에 더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는지 모른다. 이미 그런지도 모를 일이다. 정보통신의 시대에 닥친 언론의 위기에 대한 해법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사고가 과학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과학부'의 부활을 기대한다. ㉔



글쓴이는 서강대학교 화학과 졸업 후 동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